

보도시점 2024. 9. 23.(월) 12:00 (화요일 조간) 배포 2024. 9. 20.(금)

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, 민관 협업 모색

- 한국도시가스협회·도시가스사업자 등과 바이오가스 업무 간담회 개최

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9월 24일 서울비즈센터(서울 용산구 소재)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.

간담회 참석자들은 △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, △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*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·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시 인증서를 발급, 기업에서 인증서+도시가스를 확보·사용함으로써 바이오가스 간접 사용 인정(영국 RGGOs 제도 등 사례)

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’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(공공 2025년~, 민간 2026년~)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한편, 이달 2일부터 ‘도시가스사업법’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^m³에서 30만^m³로 늘어났다.

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“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환경부-도시가스 업계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계획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생활하수과	책임자	과 장	윤태근 (044-201-702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보형 (044-201-7027)



□ **개요**

- (목적)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을 도시가스 업계와 공유하고, 관련 건의사항 등 청취
- (일시) '24. 9. 24(화) 14:00 ~ 17:00
- (장소) 서울비즈센터(3호점) B1층 105호 회의실
- (참석자)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, 한국도시가스협회, 도시가스사업자, 관련 전문가(울산대학교, 화학물질연구원, 딜로이트컨설팅 등) 등 약 30명

□ **회의일정(안)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05	5'	- 인사말씀	환경부 (물환경정책국장)
14:05~15:25	80'	- 주제발표	
		-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활용 사례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안사항	한국도시가스협회 (도시가스사업자)
		- 바이오가스 공급인증제도 개념 및 해외 적용 사례 소개	한국화학연구원
		-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사례	딜로이트컨설팅
15:25~15:40	15'	- 휴식	
15:40~16:45	65'	- 종합토론	참석자 전원
16:45~16:55	10'	- 논의내용 정리	
16:55~17:00	5'	- 마무리	